

第23回 讀書週間記念세미나 主題發表

圖書館과 國家發展

李 萬 甲
서울大 圖書館長

情報化時代

現代社會는 여러가지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어떤 學者는 Mass production, Mass Communication, Mass society 등으로 나타나는 Mass의 時代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他人志向의인 性格이 지배적인 형태가 되는 孤獨한 群衆의 時代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의 社會가 脫工業時代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斷絶의 時代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의 하나로 이제 부터의 時代를 情報化의 時代로 특징 지우는 말이 있다. 美國의 어떤 學者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近代化의 초기에 있어서 英國은 産業革命에 의해서 世界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美國은 포오드의 얏켄부리工場에 의해서 대표되는 새로운 管理體系를 발전시킴으로써 世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世界를 주름잡는 國家는 情報의 生産과 分配의 體系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나라이며 아마도 日本이 그것을 달성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現代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情報化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처럼 많은 情報가 모든 生活部面에서 다양하게 生産되는 時代는 없었다. 그리고 生産된 情報가 記錄되고 保存되며 傳達되는 方式도 역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글로된 記號로 수록되고 冊의 形態로 보존되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쉬·또는 마이크로·카세트로 보존되기도 하고, 심지어 컴퓨터에 기억시켜서 간직하는 것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美國의 어떤 커다란 出版社의 代表者의 말에 의하면 모든 知의新生物을 圖書의 形態로 간직하는 時代는 지나가고 컴퓨터에 넣어서 필요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方法이 實천에 옮겨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한번 이용했을 때 著者에게 얼마나 印稅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등의 商業的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實천에 옮겨지고 있지 못하고 한다. 이미 美國의 圖書館에 가면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잘되어 일일히 카아드·카다로그를 찾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가 연구하려는 主題에 관련된 冊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問題와 情報

오늘날 韓國은 굉장한 속도로 工業化를 추진해가고 있다. 不過 몇年前만 해도 해마다 쌀이 부족하여 外國의 剩餘農産物에 의존하고 粉食日을 둔다든가, 雜穀의 混合을 獎勵한다든가 하여, 쌀의 소비를 억제해야만 했던 韓國이 이제와서는 적어도 쌀은 國內의 소비를 감당하고도 남게 되었으며, 今年에는 史上 볼 수 없었던 大豊作이 될 것이라고 豫測하고 있다. 農村에는 새 마을運動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60年代말에 떠들던 都市와 農村의 格差는 점차 좁혀져가고, 農民의 平均所得은 都市所得勤勞者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제 韓國人은 올림픽競技에서 金메달을 따게 되었고, 에베레스트를 征服한 여덟번째의 國家로 記錄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를 한심한 나라로 보고 있던 外國人들은 「韓國人들이 오고 있다. "Koreans are coming"」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韓國의 이러한 躍進을 가능하게 한 要因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는 社會的 經濟的 要因을 包含하여 여러가지 要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教育과 매스·콤의 발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韓國의 近代化를 주도한 舊 韓末의 先驅者들은 끊임 없이 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獨立新聞의 論說에서 내세우고 있는 最大의 目的的價値는 自主獨立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手段의 價値는 敎育이라고 말하고 있다. 國民이 깨지 못했기 때문에 日本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敎育만 잘되면 곧 日本을 따라잡고 富強한 自主國家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國民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獨立協會는 獨立新聞을 발간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우리의 社會指導者들은 敎育과 매스·콤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외치면서 가난하고 무식한 國民들을 啓蒙하기 위해서 最大의 努力을 기울였다.

近代化에 限하지 않고 人間이 어떤 目標을 설정하여 그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方法을 강구 해내고 실천에 옮기려면 결국은 그에 관련된 一切의 知識을 충분히 갖는 동시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強인한 意志力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사실 人間의 意志도 알고보면 知識에 연유하는 것이며, 알기 때문에 意志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한다고 하는 當爲의 判斷은 現實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存在的 判斷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意志뿐만 아니라 行動의 重要한 源泉이 되는 사랑조차도 人間에 있어서는 生理的 反射로서의 動物의인 사랑이 아니라 認識과 理解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韓國人에 있어서 敎育은 韓國이 놓여있는 특수한 條件으로 말미암아 絶對적으로 重要한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은 人間以外에 쓸모 있는 資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손쉽게 처분해서 쓸 수 있는 自然資源이 없기 때문에 安易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가 쓸 수 있는 唯一한 道具는 자기의 肉體이며 自己의 頭腦인 것이다.

이 敎育의 힘에 의해서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要因은 아니지만) 韓國은 이제 겨우 현재의 주어진 興件 밑에서 自主的인 存立이 가능하다는 確信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직 重要한 問題들이 많다. 첫째로 우리에게서 당장 내일이래도 우리의 生存을 말살할 수 있는 以北으로부터의 緊要한 軍事的 威脅이 있다. 그 威脅을 방지하고 우리의 安保를 굳건히 하는 態勢을 우리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또 실사 以北으로부터의 局部的인 挑戰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東北亞 전체의 情勢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安保는 쉽게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衛的인 態勢을 튼튼히 하여 同族相殘의 무참한 싸움을 유발할지 모르는 危險한 可能性도 배제하여 平和的統一을 달성한 土臺를 굳혀야 할 것이다.

둘째의 심각한 問題는 貧困의 克服과 貧富의 格差 調節이다. 韓國은 과거 10餘年間に 걸쳐 계속적으로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룸으로써 貧困을 크게 감소시키

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貧困은 너무나 깊고 넓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福祉的인 社會에 도달하기에는 좀더 努力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階層들간의 經濟的格差는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난한 層의 經濟的事情이 많이 好轉되고 農民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階層구조는 아직도 底邊이 넓은 倒立된 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中産層이 두터운 다이아몬드型으로 전환시키도록 해야만 보다 튼튼한 民主化의 터전이 마련될 것이다.

세계로 우리에게 당면한 重要한 과제는 現代社會가 안고 있는 갖가지 社會問題를 效果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마도 人口問題는 다른 開發途上國家에 비해서 이제부터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역시 그것은 방심할 수 없는 問題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問題는 環境保存의 문제일 것이다. 工業化에 따라서 經濟的事情은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反面 環境의 汚染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工業化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問題는 사람들의 生活姿勢과 價値觀의 변화이며 그에 따른 人間關係의 不適應이다. 많은 사람들은 精神的 倫理的인 면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냥 放置하면 韓國社會도 先進國家들이 工業化過程에서 보인 여러가지 人間不適應과 不條理의 問題, 例컨대, 核心에 따른 家族의 파괴, 機械化, 劃一化에서 오는 人間의 疎外感과 孤獨·매스·콤의 발전에 관련된 人間의 精神的自主性 상실, 價値의 混亂에서 오는 아노미와 그로 말미암아 증대되는 社會不統合, 그리고 方向을 상실한 젊은이들의 不安과 그들의 逸脫行爲 등 이러한 것들이 韓國社會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그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人은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強大國의 蔑視 또는 壓迫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껏 우리가 갖는 民族的抱負은 우리도 남의 나라만큼 살았으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남의 천대를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덮어놓고 先進國에서 갖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갖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先進國도 막상 속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순이 없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달성한 物質的繁榮이 眞實할 수 없을만큼 人間의 精神을 파괴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人類 전체의 未來를 망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과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東洋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智慧를 빌리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덮어놓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정신없이 그들의 뒤만 쫓다보면 결국 우리자신도 같은 破局에 도달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것이다. 설사 先進國들의 모순이 그들 자신 또는 人類 전체의 破滅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文化에는 우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人類 전체의 平和로운 발전을 저해할 要素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들에게는 顯在的 또는 潛在的으로 그들의 文化의 優越성을 과신하여 獨善의으로 그리고 傲慢하게 우리에게 강요하며 우리들이 우리의 希望에 의해서 택하려는 길을 가로 막고 간섭하려 드는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모든 바람직하지 못한 事態를 시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번영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는 世界人類全體의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精神體系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秩序를 꾸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韓國人은 그런 作業을 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을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韓國人은 人類가 겪은 苦痛스러운 經驗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專制的 統治와 貧困에 시달렸고, 가혹한 植民地統治下에서 신음했으며 西歐文明의 좋은 點 나쁜 點을 체현했고,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속에서 民族의 分裂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戰爭의 참상을 입었으며, 또 共產主義라는 이름 밑에 노출되는 全體主義의 官僚體制의 非人間的 抑壓을 맞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強大國에 시달리다가 발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後進國들에게 도움이 되는 知識과 智慧를 創造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韓國은 과거에 植民地로 있었던 나라중 급속한 工業化를 달성하고 있는 가장 成功的인 나라로 매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韓國은 西歐社會가 접근하기 어려운 東洋의 文化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人은 世界의 未來에서 주요한 歷史的 役割을 연출하고 人類에게 福音을 안겨다 줄 潛在的 能力을 농후하게 가진 民族의 하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成就하느냐 成就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關連되는 世界人類의 경험과 希望을 어떻게 정리하며 그에 關連된 모든 情報을 어떻게 유효하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圖書館의 실정

그러나 韓國에서는 情報을 適切히 傳達하기 위해 體系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情報을 보존하고 傳達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圖書館인데 韓國의 圖書館은 光復以後 이렇다 할 발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圖書館은 그前부터 있었고 또 近代國家에는 圖書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길다.

韓國에는 두개의 國家圖書館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國家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建물이 圖書館으로서 不適當하며 圖書를 비롯한 各種 資料를 수집할 豫算이 적고 司書職에 대한 대우가 나빠서 유능한 사람이 부족하며 參考書誌業務가 활발하지 못하여 情報의 檢索引用이나 傳達이 바람직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의 圖書館도 例外는 아니다. 最近 서울大學校는 새로운 圖書館을 건립하여 建物로서는 대체로 先進國家의 그것에 손색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內容은 아직 빈약한 狀態에 있다. 1萬 7千名の 學生을 안고 있는 서울大學校가 光復以後 30餘年동안에 수집한 圖書의 양은 불과 數百名の 學生을 가지고 있던 京城帝大가 20年 동안에 수집한 도서수의 별로 차이가 없다.

오늘날 美國의 웅만한 州立大學校의 圖書館이 갖는 圖書豫算은 대체로 120萬弗 정도이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의 圖書費豫算은 國庫와 學生圖書費를 합해서 約 40萬弗 정도인데 그것도 최근 상당히 늘어서 그정도인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圖書費에 比하면 地方國立大學은 더 형편이 없다.

日本의 보통 종합대학에서 구독하는 外國學術雜誌는 대체로 6千種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大學校에서 구독하는 外國學術雜誌는 1700種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이 자기의 課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 이상의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며, 教授들은 大學圖書館에 가서 資料를 찾아보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圖書購入豫算이 있어서 申請해달라고 하면 공연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는 教授도 있다. 筆者 자신이 大學院教育에 必要해서 圖書館에 있을만한 冊을 10卷 찾아보았는데 겨우 3卷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大學校가 學部學生의 教育을 위해서만 圖書를 마련한다면 그것으로도 이럭저럭 지탱이 될 것이다.

그러나 大學院教育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圖書館藏書構成으로서의 不可能한 것이다. 왜냐하면 碩士過程에서 研究하는 한課題에 關하여 찾아볼 수 있는 冊은 數卷밖에 없으니 碩士論文다운 論文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碩士論文은 그 主題에 關하여 既往에 어떤 研究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作成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특히 外國文獻에 많이 의존하는 學問分野에서 심한다.

우리나라에는 科學技術處에서 직접 運營하는 科學院이 있다. 大學院水準의 우수한 學徒를 양성하기 위해

서 設置된 것인데 다만 大學의 大學院課程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能力을 가진 學生으로 양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알려지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순제 大學院을 두지 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碩士課程이 그렇도이니 博士課程은 말할 것도 없고 教授의 研究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工業化가 진척되고 貿易이 진흥되면서 科學技術·經濟方面의 情報量을 늘리고 情報體系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外國으로부터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받고 지날 때에는 별로 情報를 많이 必要로 하지 않았다. 그저 援助만 많이 받고 授援國이 부여해주는 情報를 一方的으로 받기만 하면 웬만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全世界를 상대로 해서 질 좋고 싼 原料와 資材를 들여와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여야만 하고 도처에서 先進國들과 競爭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美國으로부터의 援助가 大幅 減少되고 주둔하던 軍隊도 철수한다고 떠들게 되어 國防을 남의 나라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아이디어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事業界에서 필요로하는 情報의 전체 量에서 國內에서 당장 공급될 수 있는 것은 불과 20퍼센트도 되지 못한다고 하니 國際競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事業體들이 자체의 資料室을 정비 확충하고 KORSTIC과 같은 기관의 기능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情報體系의 發展

우선 實務的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科學, 技術, 產業에 관련된 情報體系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應用인 情報는 基礎的인 情報가 적절히 공급되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研究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을 비롯하여 各種 研究所에서 사용될 學術的 情報는 體系의 體系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生産되는 情報로서 우리의 生存과 발전에 관련이 깊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國內에 비치되어야 한다. 그런 情報를 확보하는 것은 적지 않은 資金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經濟的 能力이 여러 카피의 同一한 情報를 마련할만큼 여유가 없으면 적어도 한 카피라도 마련하여 관련되는 사람끼리 나누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과 같은 缺乏 狀態가 繼續된다면 世界歷史의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

을 하기는 커녕 지속적인 발전조차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이 情報體系를 確立하고 그것을 유효하게 운영 발전시키려면 그 方面에 종사하는 사람의 資質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圖書館業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資質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로서는 圖書의 단순한 貸出業務를 수행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절한 藏書構成을 한다든가, 書誌調査를 하여 편리하게 정리 편집을 한다거나 研究者들의 研究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情報를 안내한다든가, 컴퓨터에 자료를 넣는 작업을 한다든가, 外部와의 情報資料의 교환을 하는 등의 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로 情報의 傳達를 能率의 能率으로 하려면 모든 情報資料를 컴퓨터에 넣어서 언제나 필요할 때 신속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유용하게 하려면 치밀하고 원대한 구상 밑에 計劃을 수립하여 적절히 標準化된 體系에 의해서 모든 情報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大學圖書館이나 研究所의 圖書館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 또는 企業體의 資料室과도 긴밀한 연결이 맺어져서 누가 어디서든지 必要한 情報를 즉각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우기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면 國民 모두가 近代社會에서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거기서 맡은 바 役割을 수행하게 된다. 그가 거기서 부여된 責務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동에 方向과 方法을 제시해줄 情報가 적시에 정확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情報의 제작자체가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情報를 生産하는 사람은 주로 研究者나 政策樹立家 그 밖에 知的活動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존의 情報의 여러가지 要素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또는 새로운 創造的活動에 의해서 情報를 生産한다. 생산된 情報를 마이크로필름·데이프·카세트등의 형태로 편집 제작하는 것은 出版社가 주로 담당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간편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싸게 情報를 제작하면 그 情報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이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를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옳은 倫理的 姿勢를 갖고 오늘과 來日의 社會에서의 자기들의 使命을 인식하며 그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知識과 技術을 갖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여간 긴급한 일이 아닌 것이다.